

성화약진 원년, 50년·100년 미래 다진다

〈成和躍進〉

김태흠 지사 신년 기자회견

민선8기 3년 차인 올해, 힘센충남이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으로 삼고, 충남의 50년·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먼저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북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을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하겠다”라며 “스마트팜 825만㎡ 이상 조성으로 청년농 3000명을 유입시키겠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와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창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고령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리브투게더 500호와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축산단지과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을 통해서 미래 농업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

김 지사는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고, 지역경제 정착을 위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의 9개 협력 과제와 함께, 아산항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자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과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공공기관 유치와



용봉산 새해 일출

갑진년 1월 1일 새벽 충남 홍성 용봉산에 도민들이 올라 짙게 드리운 안개를 헤치고 솟아오르는 2024년 첫 해를 맞고 있다. 새해 첫날 충남에서는 대표적인 일출 명소인 당진 왜목항과 서천 마량진항 외에 태안 백화산, 논산 탐정호, 천안 취암산 등에도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찾아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사진/도정신문팀

“지난해 성과로 증명…대한민국 경제산업 지도 새롭게 그릴 것” 농업농촌 구조개혁·탄소중립경제 선도·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박차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전제한 뒤 “도에서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가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대해서는 “성과로 증명해 낸 한 해”라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정부예산 10조 21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1541억 원(12.8%) 많은 규모로, 사상 최대 증액이자 사상 첫 10조 원 돌파 새 역사를 썼다.

국내외 기업 유치는 민선8기 1년 6

개월 만에 128개사 18조 731억 원을 기록, 민선7기 4년 실적(14조 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방치된 도정 현안을 해결했다”라며 내포 종합병원 조기 개원, 서산공항 건설 본격 추진, TBN 교통방송국 착공,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설명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2개소 선정, 국방미

래기술연구센터·국립경찰병원 분원·식품안전관리인증원·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등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의 살아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비 SOC 분야 역대 최대인 9500억 원 규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대상 선정과 1조 6000억 원 규모 양수발전 예타 대상 선정, 3258억 원을 투입하는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을 꺼내며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공모 사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인 보건 의료기술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로드맵 제시와 공모 없이 천안 지정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찰복지법, 석탄화력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2면〉

/정책기획관 041-635-3111

알림 다음 신문은 1월 25일자로 발행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정신문팀

민선8기 주요 성과

- 도정사상 최초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2개소 선정
-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 종합병원 조기 개원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예타대상 선정
-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 양수발전 예타대상 사업지 선정
-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 피해액 전액 지원
-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 TBN 충남교통방송 설립
- 탄소중립경제 관련 국비 2651억원 확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치
- 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2만평 규모
-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및 정부예산 확보
-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 대백제전 성공개최
- 힘센충남 보훈카드 출시
- 충남형 위케이션
- 전국 최초 도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국비 10조시대	3면
충남의 종가	8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	9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2024 도정 주요 일정	16면



민선8기충남도정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해 인구 유입”

공공기관 이전·종합병원·산단
영재고 설립·충남대 캠퍼스
“임기 내 인구 5만 달성할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충남은 50년·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에 새롭게 그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벨리 메가시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단지 250만평 이상을 조성해 청년농 3000명 이상을 유입해 창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등 인구 유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스마트팜 조성계획에 담긴 내용은.
“스마트팜은 충남 시군 전역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어떤 곳은 10만평이 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몇만평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시설비다. 시설비가 500~600평 하려면 평균 5억 가까이 시설비가 들어간다. 시설비를 본인이 제일 처음이 하나도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교육은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 스마트팜 250만평 정도 하게 되면 약 3000명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달성위해 공공기관 이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주요 성과와 올해 방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맹철영

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중점 유치대상 조정 배경이 있다.
“탄소중립, 문화체육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 입장에서 일단 확대했다. 드래프트제는 누구의 조언이 아닌 저의 아이디어다. 충남이 요구하는 드래프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찰시키겠다고 말씀드린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상황이 올 때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합동청사를 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성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영재고 시작으로 충남의 특색 가진 교육특구 조성 로드맵이 궁금하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여러 부분을 확충해서 인구 10만 도시를 조기에 만들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교육시설이 중요한 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영재고를 설립하기 위해 힘썼다. 이번 국비에 영재고 첫 사업비를 넣었다. 충남대에서 도 충남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뿐만 아니라 대학기능을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조성 10년이 됐는데 활성화 대책이 궁금하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10만 달성은 어렵다. 다양한 기능이 들어서야 인구 10만이 들어선다. 흥성에 국가산단, 종합병원, 영재고 들어서면 정주여건이 좋아진다. 예산에 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이부분만 하더라도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인구 5만이 넘으면 10만은 탄력적으로 빠른 속도로 간다. 임기동안 인구 5만을 만들겠다.”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추진 어떻게 진행되는지.
“2월까지 용역 끝나면 구체화할 것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아파트같은 건물을 지어 키운다. 30만 두를 키우면 단지 안에서 분뇨처리하고 바이오가스는 전기로 활용한다. 간척지에 하기 때문에 땅매입이 원활하고, 민원 발생이 적을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는 형태이다.”

-서산공항과 가로림만에 대한 올해 추진계획 들려달라.
“서산공항은 설계비가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이다. 서산공항은 2028년까지 완공이다. 터미널 하나만 만들어지면 공항 역할을 한다. 기존 활주로 활용하면 된다. 500억 정도 사업이다. 2028년까지 확실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로림만은 예타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예타 통과되어야 사업이 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한눈에 보는 충남 사회지표

지난 1년간 충남도민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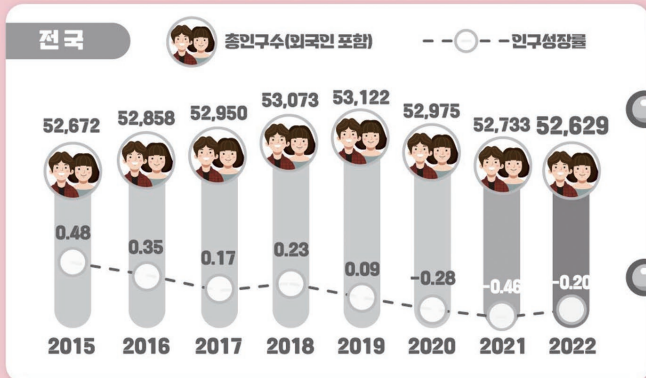
- ✓ ‘충남 사회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상태를 측정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국가승인통계 제 213009호)
- ✓ ‘충남 사회지표’는 충남지역 15,00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타 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사회조사기간: 2023.4.19.~5.10.)

*10점 만점 평균값은 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 1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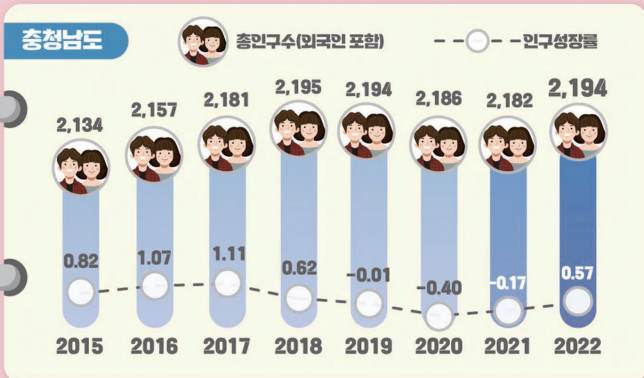
인구

✓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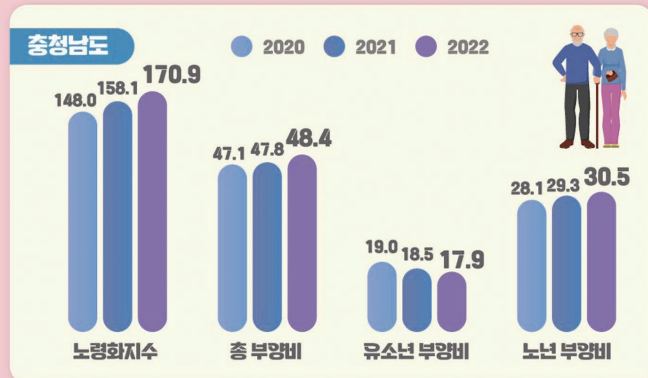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 연령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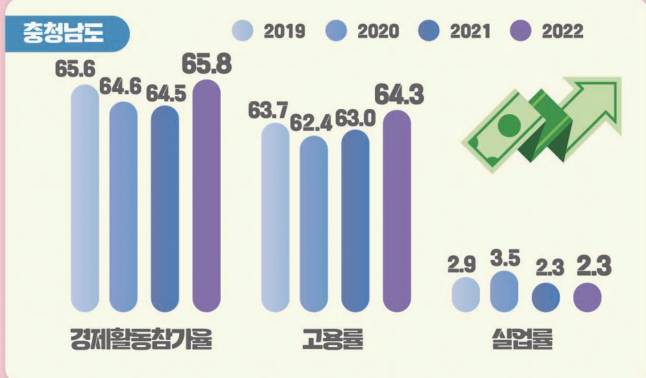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총 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노년 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노동

✓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 + 만 15세이상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 만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

사회통합

✓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10점 평균)



※ 출처: 충남 사회조사



도정 사상 최초 국비 10조 시대 개막

정부예산 10조 1630억 확보 전년比 12.2%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충남도가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도청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예산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10조 163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 규모로 10조 원을 처음 넘었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10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확보한 국비보다 1조 1041억 원(12.2%) 많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세부계획이 확정·배분되면 우리 도에 약 500억 원이 추가되어 실제 확보액은 10조 213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비 확보 주요 성과를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 ‘미래 전략(핵심) 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충남 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5억 원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30억 원 ▲서산 ‘그린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

(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30억 원 등을 담았다.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는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초격차 확보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은 연평균 7.9%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바이오 생체 활성화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효과성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서는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고남~창기국도 77호 건설 260억 원 ▲천안 북면~임장 국지도 2차로 개량 2억 원 등을 포함시켰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충남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분야 ‘해양 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에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5억 원
-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30억 원
-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2억 원
- ▲최첨단 해양 허브(관광+과학)인공섬 조성 5억 원
-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7억 원

주요사업 국비확보내역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 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4억 3000만 원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70억 원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33억 4000만 원
-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5억 원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원

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0억 원 ▲최첨단 해양 허브(관광+과학)인공섬 조성 5억 원 등을 새롭게 반영시켰다.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은 해양 신산업 허브 육성과 해양 랜드마크 구축, 해양레저관광 미래 모델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투입한다.

‘농어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7억 원 ▲부여 농촌융수개발 사업 3억 원 ▲

국가어항 흥원항 정비 5억 원 등을 담았다.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세계 그린바이오 산업화 경쟁 본격화와 국가적 차원의 그린바이오 육성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으로, 2027년까지 231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 사업으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 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4억 3000만 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70억 원 등을,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분야에서는 ▲장항 국가

습지 복원 33억 4000만 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5억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시장 주도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으로, 반영시킨 2억 원은 기획비로 사용한다.

김태흠 지사는 “각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담당관 041-635-3174

김태흠 지사, 도민 숲 조성 예금 1호 가입

농협은행 충남본부 예금 출시
예금액 0.1% 도민 숲에 기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흥예공원 도민 참여 숲 기금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월 2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영업부를 방문해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새해부터 출시한 ‘충남도민숲 환경사회투명(ESG) 예금’에 1호로 가입했다.

충남도민숲 환경사회투명(ESG) 예금은 지난해 7월 도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체결한 ‘흥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출시됐다.

해당 상품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예금액의 0.1%를 흥예공원 명품화사업 후원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최대 5억 원까지 기부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개인 100만원 이상, 법인 1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다.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년(만기일시지급식)이며, 가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 관내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도는 내포신도시 흥예공원을 지역 대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민 참여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사랑의열매 등을 통해서 기부금 100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을 진행해 왔으며, 5차례에 걸쳐 도민 참

여 숲 헌수금 전달식을 열고 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누적 2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했다.

도는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기부 방식과 대중스포츠(골프대회 등)를 활용한 범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기부 문화를 다양화하고 도민 참여 숲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특판 예금상품 출시로 기부금 모금과 더불어 도민 참여 숲에 대한 홍보 효과로 도민과 지역 기업·단체의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함께 명품 흥예공원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유치과 041-635-3374



김태흠 지사가 충남도민숲 환경사회투명 예금 1호로 가입하고 있다.

충남도민숲 조성 공동모금

도민의 참여로
흥예공원이 탄소중립 명품공원으로 거듭납니다



함께함은
대한민국의 힘

충남도민숲 조성

모두를 위한
나의 나무를 기부해요

참여기간 | 2023년 8월~
2025년 3월
참여방법 | 전용계좌 기부

도민참여 전용계좌 | 농협 301-0313-5905-61

함께함은
대한민국의 힘



충남도민 참여숲 조성,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공원 내 구조 개선, 디자인 혁신을 통해
흥예공원을 탄소중립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참여 문의처

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단 전화041-635-3389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화041-635-0340

함께함은
대한민국의 힘

금산에 500MW 규모 친환경 양수발전 시설 건설

양수발전 예타대상 사업지 선정
“예타 신속 통과에 행정력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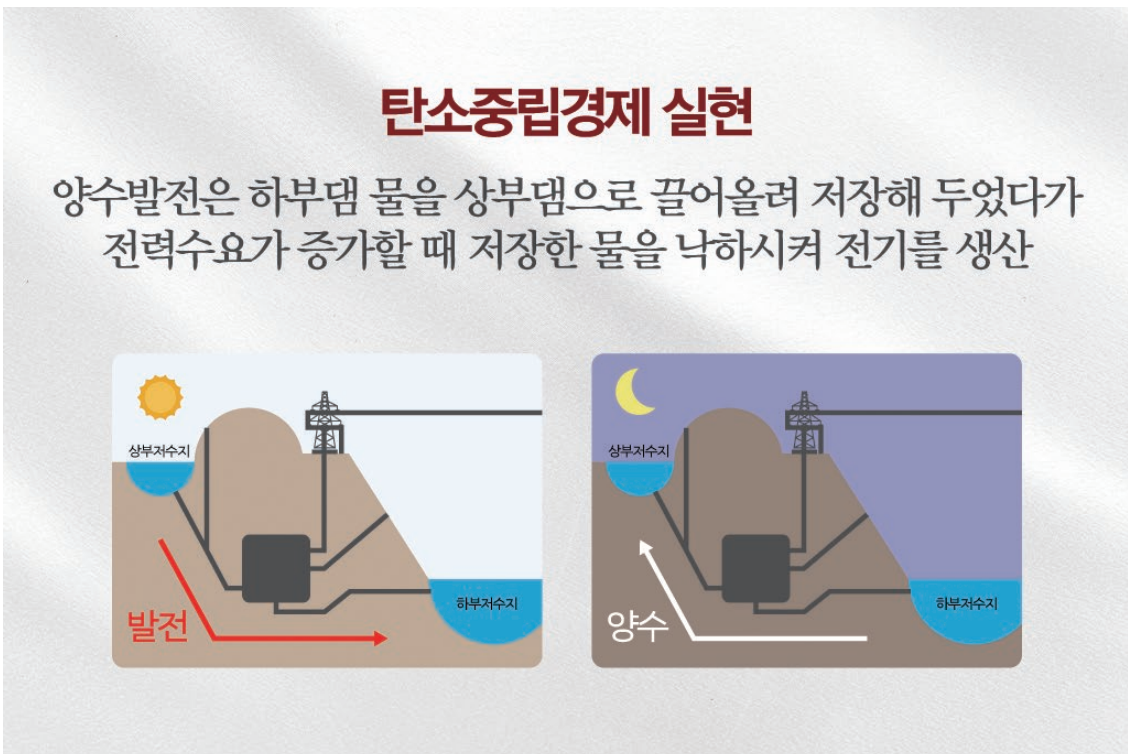
충남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도는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수발전은 수요가 적은 심야전력을 이용해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상부댐으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낮시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과잉생산되는 전력을, 밤시간에는 유휴전력을 활용하는 만큼 탄소중립 경제를 견인하는 발전방식으로 꼽힌다.

도는 예타 진행상황에 따라서 2035~2038년까지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 1516㎡에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500MW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상·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이며, 총 1조 5469억여 원의 사업

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금산군 예타대상 사업지에 대해 주민

수용성이 높고, 하부댐 설치 예정지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 안정적인 유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송전선로(무주~금산)가 지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봤다.

양수발전은 전력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방식으로, 탄소중립경제 실현은 물론, 그동안 지역발전 등에서 군민들이 느꼈을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양수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향후 50년간 총 493억원의 지원금, 지방세 수입 350억원, 관광수익 5000억원, 직접 고용 120명 등 420여 명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양수발전을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산업과 041-635-3952

충남도 방사능 안전현황

[2023. 12. 16. ~ 12. 31.]

안전

전국 수산물 방사능 안전현황
- 경기도 등 10개 지역 (●)

해수	도내 해역 불검출
해수욕장	도내 해수욕장 불검출
수산물	도내 생산 수산물 3건 적합
유통식품 등	학교급식 식재료 36건 적합

● 안전

 50이하(Bq/kg)

● 관심

 50초과~100이하(Bq/kg)

● 위험

 100초과(Bq/kg)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 오는 실천 완료!

Bye Bye Plastic

도정게시판

혁신 선도기업에 한양로보틱스

충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올해의 혁신 선도기업으로 한양로보틱스(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3 충남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강종원 한양로보틱스(주) 대표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지역 내 선도(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1년부터 충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양로보틱스(주)는 30년간 로봇, 자동화 기술을 위해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22년 충남스타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협업 성과에 따라 최대 3년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구개발 과제의 사전 기획을 위한 자문,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 매칭,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다.

도는 내년부터 3년간 기업별 최대 10억원까지 연구개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육성과 041-635-3928

신임 경찰관 청렴 인식 제고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월 4일 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 교육 중인 신임 경찰공무원 98명에게 청렴·인권 관련 도서를 전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제공한 도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도서 가운데 청렴·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도서로 선정했으며, 인문서 위주로 선정하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설 작품도 포함했다.

이번 도서 전달 행사는 신규 임용 경찰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돕고, 신임 경찰관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신임 경찰공무원들은 경찰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청렴·인권 인식을 갖춘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나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910



충남 대표 문화상품 지정

충남도를 대표하는 인정문화상품으로 ‘백제 구름문 고마곰 조형물’이 선정됐다. <사진>

도는 도자 업체인 하늘도예가 제작한 백제 구름문 고마곰 조형물을 제13호 인정문화상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제 구름문 고마곰 조형물은 공주 공사당 조각상의 외형을 본뜬 도자기에 백제무늬전돌 중 구름문을 양각해 만든 조형물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장식성 이상의 기능을 하는 오브제로서 일상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향후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해당 상품에 인정문화상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에는 상품 개발 장려금을 지원해 지역 문화상품을 지속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 041-635-2413

중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충남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300여 명에게 3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도는 올해 5개 시군, 19개 단지, 224명에게 기숙사 임차료로 2억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업지원과 041-635-3450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내선 041-635-2035

스마트팜 청년농 무담보·무이자 금융 지원

도·NH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신보 협약
청년농 1000여 명에 2000억 규모 지원
“열정 갖고 몸만 와도 창업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무담보·무이자 금융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경영 안정 자금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 자

금 부담을 완화해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에 도와 엔에이치(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30억 원, 10억 원, 5억 원을 동반 출연해 총 4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675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경영 안정 자금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특례 보증은 675억 원씩 3회에 걸쳐 2025억 원 한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2·3회차

출연 금액과 보증 규모는 1차 특례 보증을 진행한 후 협의할 계획이다.

특례 보증 대상은 ▲창업자립형 ▲자립형 온실 신축 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자로, 대상 인원은 2025억 원(1~3회차) 기준 인당 최대 융자 한도 2억 원 활용 시 1012명 수준이다.

보증 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며, 신용보증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다.

김태흠 지사는 “개인당 융자 한도 2억 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파격적인 무담보 융자를 통해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확 낮출 것”이라며 “청년들이 열정만 가지고 온다면 청년농이 충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41



충남병원선 새해 첫 뱃고동

‘충남병원선’이 취항 이후 첫 새해인 2024년, 첫 뱃고동을 울리며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 시작을 알렸다. 충남병원선은 1월 3일 보령 삼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진료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6개 시군 32개 유인도서(원산도, 삼시도, 장고도, 효자도 등) 주민 3440명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순회 진료 활동을 펼친다. 진료 목표 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진료 과목은 내과와 치과, 한의과 등이며, 연간 목표 진료 연인원은 1만 2000명이다.

/보건정책과

2026년 충남~대전 ‘미니 전철’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착공

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까지 달리는 ‘미니 전철’이 오는 2026년 개통한다.

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 사업’ 노반 분야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 총 2598억 원을 투입해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 연장 35.4km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

하는 사업이다.

구간에는 별도 철로 신설 없이 12개 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계룡·흑석리·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 등 6개 정거장을 개량하고,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 정거장을 새롭게 설치한다.

투입 열차는 기관차가 없는 전동차로, 2량(칸) 1편성 씩 총 8편(예비 1편 포함)이다.

운행 횟수는 2030년 말 기준 1일 2만 7259명의 교통 수요를 감안, 하루 편도 66회로 잡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2분에 1편,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에 1편 씩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신탄진 간 이동 시간은 상하행 모두 35분이다.

한 정거장 당 이동 시간이 3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계룡에서 대전 도심지(서대전)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이 노선이 개통하면 충남 남부와 대전 간 철도 교통 편의 증대 및 이동 시간 감소, 철도 이용 증가에 따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뒷받침,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93

충남도립대 신입생 정시모집

1월 15일까지 원서접수

충남도립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정시 모집은 13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15일까지이다.

성적 반영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일반전형은 건설안전방재학과 등 11개 학과가 학생부성적 30%와 수능성적 70%를 반영한다.

부티코디네이션학과와 자치행정학과(야간)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학생부성적 100%를 반영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이며 대학 홈페이지(www.cns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입학홈페이지(https://cnsu.ac.kr)를 참고하거나 기획홍보처(☎ 041.635.6699)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찬 총장은 “우리 대학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충남 유일 공립전문대



충남도립대학교 전경.

학교로써 명실상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와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다”며 “누구나 걱정 없이 자신의 꿈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041-635-6699

중점 유치 공공기관 44개로 확대·조정

탄소중립·문화체육 틀 유치
이전 긍정 기관 타깃 재설정

올해 총선 이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타깃’을 확대·조정하고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10곳을 늘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과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 파급효과와 도 정책 방향을 고려해 분야를 바꾸고, ‘유치 관심 대상 기관’을 별도로 분류했다.

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 기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3개로, 5개 기관을 재설정했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총 6831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제시·요구하고 있다.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은 기존 10개에서 7개로, 문화체육 기능군은 7곳 중 2개 기관을 조정했으며, 경제산업 기능군은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3개 기능군 21개 공공기관 직원 수는 1만 355명으로 집계됐다.

유치 관심 대상 기관 10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다.

/공공기관유치과 041-635-3382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취임

“현장에 강한 조직 만들 것”

충남소방본부는 1월 1일자로 권혁민(사진) 소방감이 제18대 충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권 신임 본부장은 취임 첫 날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상황관리, 연말연시 안전대책,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등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권 본부장은 1995년 소방간부 공채 8기로 소방에



입문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 충북소방본부장과 소방청 화재에

방과장 등을 거쳤다.

권혁민 본부장은 “동료 소방관,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22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과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61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착공

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까지 달리는 ‘미니 전철’이 오는 2026년 개통한다.

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 사업’ 노반 분야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 총 2598억 원을 투입해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 연장 35.4km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

충남도립대 신입생 정시모집

1월 15일까지 원서접수

충남도립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정시 모집은 13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15일까지이다.

성적 반영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일반전형은 건설안전방재학과 등 11개 학과가 학생부성적 30%와 수능성적 70%를 반영한다.

충남도립대 신입생 정시모집

1월 15일까지 원서접수

충남도립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정시 모집은 13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15일까지이다.

성적 반영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일반전형은 건설안전방재학과 등 11개 학과가 학생부성적 30%와 수능성적 70%를 반영한다.

청양 첫 일반산업단 ‘수소특화단지’로 조성

비봉면 일원 73만㎡ 규모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대

청양군 첫 일반산업단지가 ‘수소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일원에 1086억 원을 투입해 73만㎡(22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청양 일반산업단은 제4차 산업, 광역 접근성 등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부의 산업정책 선제 대응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개발된다.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624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2591억 원 등 총 8834억 원과 27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 진출입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도 29호선 중목교차로 구간을 기존 3지에서 4지 교차로로 변경·개선해 진입도로를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또 국지도 96호선(신원2리-신원교차로)에서 산단으로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고, 진입로부터 신원교차로까지 770m 구간 도로를 확포장해 대형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차량의 통행과 도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공업용수는 환경부 정책사업인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개발을 통해 확보할 예정으로, 산단으로부터 약 11km 거리에 지하 차수벽, 취수시설을 설치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업용수관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산단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청양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며 한국고용연구원이 발표한 ‘소멸 고위험’ 군에 포함돼 있다”라며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자 경제 기반을 넓히는 산단이 청양군 내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이 조성되고 본격 가동하면 청양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인구 유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청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지원과 041-635-2228

당진 3·10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개관

연면적 117.28㎡ 지상 1층 규모
무료 관람...역사교육의 장 활용

충남 최초의 학생 주도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면천공립보통학교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관이 1월 2일 문을 열었다.

‘면천공립보통학교 3·10 학생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고종황제 인산에 참례차 서울에 갔다가 3·1운동을 목격하고 귀향한 원용은이 당시 면천공립보통학교 재학생인 박창신, 이종원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우리나라 학생독립만세운동사에 선구적 의미를 가지며 당진 지역 항일운동에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면천공립보통학교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관’은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면천면 성상리 808-42번지 일원에 연면적 117.28㎡,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했다.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당진시 제공



1월 2일 개관한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관 내부.

당진시 관계자는 “3·10 학생만세운동과 관련된 유물을 연중 기증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유물이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기와 역경을 단단히 이겨낸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제공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90일 이내 보건소에 서류 제출

공주시는 올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시는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

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041-840-32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제공

수술 전 금식에 대한 오해

공공의료원 칼럼

아직까지도 수술 전 금식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술 전 금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위한 금식인데 중요치 않게 여겨 흘려듣거나 심지어 의료진 몰래 무언가를 먹는 일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금식 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며 평소보다 과한 식사를 하는 환자들도 본 적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했다면 8시간의 금식기간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가벼운 식사 시 6시간, 모유는 4시간(분유, 우유는 6시간), 물과 같은 건더기가 없는 맑은 액체는 2시간 금식기간을 가져야 한다. 금식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초 응급 수술을 제외한 정규 수술에서는 위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있다.

충분한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에서 전신마취 시 산성의 위액이 포함된 음식물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흡인증후군(pulmonary aspiration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치사율이 4.6 퍼센트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한다면 절반 이상에서는 기계적 환기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지며 폐부전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간단한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왔던 젊은 성인 남성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주간 생과사를 넘나들었던 경우를 경험한 적 있다. 이처럼 발생하는 순간 견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충분한 환자 교육 및 확인이 필요하고 금식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와 같은 부위마취의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 없을까? 우선 척추마취는 환자의 체형, 척추 형태에 따라 100%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척추마취는 뇌척수액을 따라 국소마취제가 퍼짐으로써 마취효과가 나타는데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원하는 만큼의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기치 않게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나 마취가 예상보다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로의 전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술 전 금식 및 폐흡인증후군의 예방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위장관 배출시간이 개인마다 다르고 역류성위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환자에게 8-6-4-2 규칙은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과 같은 8시간의 금식시간을 적용하는 것 보단 8-6-4-2규칙에 맞춰 4시간 전까지만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소아의 탈수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금식시간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겠다.



권순구
서산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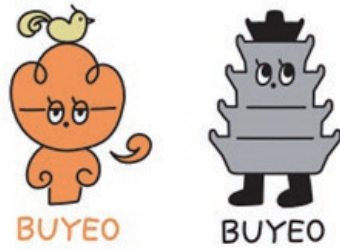
부여 문화 관광 신규 캐릭터·상품 출시

정림사지5층석탑·금동대향로 등 생활 용품에 지역 특색 담아내

부여군이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백제 금동대향로를 담은 신규 캐릭터와 문화관광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문화관광상품은 백제의 사비시대를 대표하는 부여의 지역적 특색을 담았으며 부여군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머그컵, 유리컵, 키링을 제작했다.

또한 부여군을 대표하는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백제금동대향로를 본따 부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공



단 내 자체 신규캐릭터 명칭 공모전을 통해 이름을 지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캐릭터는 정림사지오층석탑의 탑과 백제의 왕도사비의 비를 합성하여 만든 ‘타비’, 백제금동대향로 캐릭터는 백제금동대향로에서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향을 생각해 ‘향이’로 지어졌다.

/부여군 제공

태안 농어촌버스 거리 상관없이 1500원

올해부터 요금제 단일화 시행

올해부터 태안군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은 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해 징수해온 ‘이원화 요금제’를 1월 1일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 1500원(성인 기준)만 내면 된다.

그동안 15km 이내는 1500원, 초과 시에는 1700원 요금을 내야 했다. 군은 단일 요금제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연간 약 1억 원(추산)을 전액 군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요금제가 변경되면서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원거리 주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15년부터 적용된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과 농어촌버스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져왔다고 판단해 단일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왔다. 이에 올해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의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태안여객과 협약도 맺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안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54만 9187명에 달한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홍성, 충남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올해부터 3년간 200억 원 지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충남도에서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1년간 예비문화사업 이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

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유기적인 지식인들과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사는 클러스터 공동체 만들기 ‘통’ ▲하이퍼로컬에서 글로벌까지 무경계로 협업하는 생활인구 ‘공존’ ▲문화터가 모여 백년터가 되고 로컬 콘텐츠타운까지 터무늬 ‘마을’ ▲새로운 생산, 새로운 협동, 새로운 지속으로 도시활력 채우기 ‘자립’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성했다.

그중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의 앵커사업인 ‘K-문화레시피 특구, 홍성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해 문화도시 홍성의 유기적인 자립생태계 구축,

홍성의 근본이 되는 인본가치로부터 홍성이 가진 문화자원, 먹거리, 지역 생산물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가치가 세계가치로 융합할 수 있는 K-문화레시피 개발, 홍성 문화레시피로 15분 문화생활권을 만들고 사회경제 효과 창출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했다.

군이 제출한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문화의 맛, K-문화레시피 1번지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농복합도시의 문화불균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을 5개 로컬 콘텐츠타운으로 구축하는 유기적인 문화도시를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목 군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통해 홍성군을 포함해 40여 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1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홍성군 제공

글라디올러스, 태안서 ‘겨울꽃’ 변신

나트륨 등(燈) 이용 기술 개발

여름꽃으로 잘 알려진 ‘글라디올러스’가 태안에서 겨울꽃을 활짝 피워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초로 나트륨 등(燈)을 이용해 일조량 및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 다년간의 시범 재배를 거쳐 지난해(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글라디올러스 꽃 출하에 나서고 있다.

글라디올러스는 아프리카 및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일반적으로 8월경 꽃이 핀다. 생육 최저온도가 5℃로 3℃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며,



태안을 평천리의 한 화훼농가에서 글라디올러스를 재배하는 모습.

겨울에도 최저 10℃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추위에 매우 약해 겨울에 꽃을 보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가 나트륨 등(燈)을 이용한 기술을 자체 개발과 더불어 글라디올러스 구근에 대한 자체 생산 체계도 갖췄다.

이에 매년 여름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 큰 인기를 끌면서도 추위에 약해 화훼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던 글라디올러스가 태안에서 ‘겨울꽃’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했다.

태안지역은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한 해안성 기후를 적극 살려 화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은 고품질의 꽃을 생산해내며 전국 최고의 화훼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태안군에서는 184농가가 160ha에서 화훼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전국의 3.8%, 충남도의 40%에 달한다. 주요 생산품목은 국화, 안개초, 스타티스 등의 초화류와 글라디올러스, 튤립 등 40여 품목이다.

특히, 꽃을 보기 힘든 겨울임에도 이달 현재 관내 50여 농가가 국화, 안개초, 스타티스, 백합, 글라디올러스, 소재류 등 10여 품목을 출하 중이다.

/태안군 제공



큰고니의 겨울나기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인 충남 당진 합덕제에 ‘겨울잔객’ 큰고니 50여마리가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눈 쌓인 합덕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큰고니들 모습.

/당진시 제공

아산시, 출생가정 산후관리비 지원 확대

6개월 이상 주소지 등록 기준

아산시가 산후관리비용 지원 조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아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

비를 지원했으나, 1월 26일부터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아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 그 외 일반대상자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원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제공

충남도 참 살기 좋아요

독자투고

2023년을 맞은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새 달력이 나왔다. 연말연시에 제법 야무진 꿈도 꾸고 화려한 계획도 세웠는데 지나고 보니 작심 3일이 된 것 같아 속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연말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짜는 중이다. 왜냐하면 지난해를 회고해 볼 때 창피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한 것 중에 한 두 가지는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 그나마 계획을 안 세웠던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아니 좀 더 고상한 언어를 쓰자면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며 계획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한때 전방지구(수복지구)군청소재지에서 수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반 구성원이 재미있었다. 당시에는 전방 일선지구라 그런지 매달 한 번씩 ‘반상회’를 열 때이다. 반장 한 가정만 양복접하는 민간인이고 나머지 가정은 공인들이었다. 장학사, 목사, 우체국장, 군 보안대장, 연대장, 경찰

서장, 군수, 그리고 필자 등 이렇게 여덟 가정 이 매월 한차례 식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 다과를 나누며 재미나게 지냈었다. 때로는 기관장 모임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네 집은 서로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런데 기상 후 첫 활동이 흥미로웠다. 왼쪽 집 연대장은 넓은 마당에 나와서 뽕튀기를 몇 바퀴 돌려 체력단련을 하고, 오른쪽 군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밖에 나와서는 우체국장 집과 경찰서장 관사까지 이웃 길을 쓸고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했다. 이때 필자놀리에 깨우침이 왔다. 즉 애국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라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에는 독립운동 하는 것, 전시에는 자원입대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 이런 정도라야 ‘애국자’라고 하겠지만 평시에는 자기 몸 건강관리도 하고 자기 집 부근은 자기가 청소하고 눈을 쓰는 것도 훌륭한 애국자이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모 군수는 군민들을 독려하여 늦어짐에 풀베기작업으로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지력증강과 식량증산으로 표창을 받는 것

도 보았다.

최근 서산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으로 민의 수렴과 민원을 공개 처리하는 것도 좋게 보였다. 그 자리에서 시정발전에 좋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수의 건전한 시민들의 뇌리에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의견들이 많이 내장되어있었다. 이런 것이 올바른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도정에 반영된다면 이 또한 시민참여시대에 애항심을 발휘하고 작게나마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7천만 국민이 각자 자기할일을 찾아서 한다면 많은 갈등이 감소되고 열악한 지방정부산립이나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것이다. 7천만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나라가 얼마나 잘될 것인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국민으로 프랑스를 꼽는데 인구의 20%가량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다.

가끔 옛 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무연고지에 가서 살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충남에 와서 살아보니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충남은 공간의 축소판이요 시간의 축소판 같다. 연구단지, 첨단산업단지, 발전시설, 정치, 경제, 군사, 문화·과학 등 과거 미래 현재가 공

존하는 곳이며 교통망도 육해공로 모두 갖추고, 고속도로, 고속철 등도 전국 1순위다.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실현이 있는 곳, 좋은 것을 다 열거할 수 없다. 연중 실시하는 행사도 세계적인 것들이 있다. 보령 머드축제, 예산장터삼국축제, 태안수목원 핼파스축제, 부여국화축제, 안면도 대하축제, 서산 국화축제, 천안 거봉포도축제, 공주 부여 대 백제전 등 지금쯤 방랑시인 김삿갓이 충남에 오신다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충남에 살아보지 않고 풍류와 인생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 충청도로 놀러 오세요. 얼마나 좋은 데요.

/이종열(서산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원고 보내는 곳: deun127@korea.kr

문의: 041-635-4932

*도정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충남의 종가

1) 서산 경주김씨 판관공파 종가

우리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며 집안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급격한 사회변화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집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가도 그 형태가 무너져 가고 있다. 도정신문에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종손들과 문중 관계자들의 종가를 잇고자 하는 노력을 매월 한 차례씩 12회로 나눠 송고한다.

〈편집자주〉



서산 경주김씨 고택 안채와 안마당.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500년 전 충청도 서산 정착...정순왕후 배출 명문가

김연, ‘한다리 김씨’를 열다

경주 김씨는 김알지를 시조로 여러 세대를 거듭하며 많이 분파한 성씨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경주김씨 판관공파 가문은 김인관(태사공)의 9세손 김자수(상촌공)의 고손자 김양수(공산판관공)를 파시조로 하는 경주 김씨의 한 분파이다.

판관공파 사람 김연이 큰 다리가 있었던 유계리 한다리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후 이곳의 경주 김씨를 ‘한다리 김씨’라고 불렀다. 이 마을을 기반으로 번성한 한다리 김씨의 후손은 32명이나 문과에 급제하였고, 정승, 관찰사, 의병장 등 훌륭한 인물들을 여럿 배출하였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인물로는 추사 김정희의 7대조인 김홍욱과 영조의 왕비인 정순왕후가 대표적이다.

김연은 서산에 최초로 거주한 경주 김씨 판관공파의 일원으로, 지금의 서산 한다리 김씨를 만든 장본인이다. 황해도 서흥부사 재직시 임격정을 토벌하는 공을 세운 그는 1500년대 중반 말년에 이르러 서울 저동에서 서산 유계리 한다리 마을로 내려와 살기 시작하였다.

후손들 왜적에 맞서 싸우다

김연의 둘째 아들 김호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에서 의병활동에 참여하여 군량과 군인을 국왕이 있는 평안도 의주로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김연의 손자 김적은 월사 이정구와 동문수학한 사이로 광해군 재위 시절 관직을 버리고 고향 서산에 내려와 살았다.

김적의 아들 4명은 각각 번성하여 ‘한다리 4파’의 파시조가 되었는데 장남 김홍익의 가계는 충민공파 혹은 목재공파, 2남 김홍량은 장사랑공파, 3남 김홍필의 가계는 교관공파, 4남 김홍욱의 가계는 학주공파 혹은 문정공파라고 한다.

이 가운데 장남 김홍익과 4남 김홍욱은 김연 못지않은 한다리 김씨의 유명인사다. 김홍익은 병자호란이 발발한 해에 연산현감으로 충청도관찰사와 함께 근왕병을 조직하여 국왕이 피난해 있는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다 경기도 광주(현 성남 분당) 함천전투에서 청나라 군대와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의 아우 김홍욱은 효종에게 소현세자빈 강씨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청하였으나 효종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송시열과 송준길 등 서인의 건의로 신분이 회복되고 서산 성암서원에 모셔졌다.

‘보릿고개’로 정순왕후가 되다

김홍욱의 신분 회복을 계기로 한다리 김씨 집안은 17세기 이후 서산 지역은 물론 중앙 정계에서도 위상이 높아져갔다. 김홍욱의 고손 김한구는 정순왕후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한다리 김씨이다.

김한구는 성품이 훌륭하고 문장을 잘 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람됨과 자질이 어느 날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인 홍봉한의 귀에 들어갔는데, 홍봉한은 김한구에게 한양으로 거처를 옮겨 자신과 함께 하자 제의하였다. 이에 1746년(영조 22) 12월 오랫동안 살던 한다리 마을을 떠났다.

당시 김한구와 함께 한양으로 이주했던 그의 가족 중에는 두 살 난 딸도 있었다. 이 딸은 13년 후인 1759년에 영조의 왕비이자, 정조의 계모로 알려진 정순왕후가 된다.

정순왕후는 왕비 간택 때 있었던 일화가 유명하다. 간택에 참여한 궁궐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무엇이나 물었더니, 조선에 있는 험준한 산의 고개를 대답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그녀는 보릿고개가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라 대답하여 왕비로 간택되었다 전해진다. 국왕의 아내이자 한 나라의 어머니로서 백성을



경주김씨고택(우측)과 정순왕후 생가(좌측) 전경. /서산시



정순왕후 생가. /서산시



경주김씨 판관공파 종택 주인 김기현(우측)씨가 종중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서산에 역사와 전통을 남기다

한다리 김씨의 시조인 김연은 서산에 내려와 집을 세 채 지었다. 이 집들은 아들 김호열, 손자 김적 그리고 김호열의 사위 김지남에게 분배되었다. 우리가 한다리 김씨의 터전이라 하는 판관공파 고택과 정순왕후 생가는 김적과 김지남이 받은 집을 가리킨다.

현재 판관공파 고택에는 김적의 장남 김홍의 계열의 김기현 씨가 퇴직 후 2002년 귀향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고택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정순왕후의 생가는 김홍익의 후손이며 독립운동가인 김용환의 생가이기도 하다. 김용환의 아들 김기흥 초대 민선 서산시장이 소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들 한다리 김씨의 터전은 조선시대에는 한다리 김씨의 지역적, 정치적 높은 위상이 시작되는 공간이었다. 현재는 한다리 김씨 후손들을 위한 안식처이자, 한다리 김씨의 훌륭한 조상을 위한 여러 제향공간이며 일반인들의 휴식 및 한옥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다리 김씨의 터전에는 고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들과 관련된 유적들도 있다. 정려와 단구대가 대표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정려는 한다리 마을 입구에 세워진 김홍익과 김유경의 정려가 있다. 이 가운데 김유경의 정려는 효성으로 유명한데, 조선 숙종때 김유경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세라는 나이로 인해 상복을 입지 못했다. 당시 부친상을 치르지 못한 김유경의 안타까운 60년 후 그가 아버지를 위해 상복을 입고 시묘살이를 하면서 풀리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조선 조정에 알려져 1751년 영조는 효의 귀감이

경주김씨 판관공파의 주요인물 생몰년도

인물	특이사항, 활동
김연(1494~?)	서산최초정착
김호열(1534~?)	임진왜란 의병장
김적(1564~1646)	불천위
김홍익(1581~1636)	병자호란 시 전사
김홍욱(1602~1654)	강빈신원 및 장살
김유경(1669~1748)	효자정려
김한구(1723~1769)	정순왕후의 부친
김한록(1722~1790)	영조의 부마, 월성위
정순왕후(1745~1805)	영조의 계비
김정희(1786~1856)	조선후기 실학자, 추사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라 칭찬하며 정려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정려뿐 아니라 한다리 마을에는 단구대(丹丘臺)가 있다. 단구대는 한다리 김씨 김적이 명칭을 붙인 것이다. 김적은 광해군대 벼슬을 그만두고 한다리 마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중 바위가 많고 물이 맑은 곳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밤낮으로 밟고 신선이 산다.’는 의미인 단구(丹丘)라 이름 붙여 지금까지도 한다리 마을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는 한다리 마을에 한다리전통문화회관을 건립하여 마을축제와 전통혼례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문중의 결속을 다지고 전통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다리 김씨 후손들은 자신들의 터전에서 서산의 오랜 역사와 조상 및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다리 김씨의 특별한 전통은 그들의 불천위 제사에서 나타난다. 그들의 제사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떡이나 고기 등 제물을 높이 쌓아 웅장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불천위 조상님께 넉넉함을 전달하고, 불천위 제례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어류와 해산물을 풍부하게 진설하는 것으로, 이는 한다리 김씨의 근거지인 서산지역이 바다와 가까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한다리 김씨의 제사상이 영남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다리 김씨의 조상인 김자수가 안동에 살았을 때 만들어진 전통이 현재까지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제례를 지낼 때 안경을 벗고 의식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안경이 없었던 시대의 전통을 최대한 맞추려는 노력이라 여겨진다.

/유준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위촉연구원

전략작물직불제도 확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품목과 지급단가가 확대된 다. 기존 논콩, 가루쌀 (100만원/ha)에서 올해부 터 두류, 가루쌀(200만원/ha), 식용옥수수(100만 원/ha)로 확대한다.

/스마트농업과 041-635-2522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46

고령 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사업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정부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참여자(65~79세 이하 농업인)이며, 규모는 600ha / 30억원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더해 1ha기준 매도 500만원, 임대 3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8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게시한다. 모든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를 게시하고,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백신, 전혈구검사비, 엑스선촬영비 등 11개 항목이 해당된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09

보육도우미 채용기준 확대

보육도우미 신청자격이 도내 거주 65세 이하에서 도내 거주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채용 시 가정어린이집은 1일 6시간에서 7시간까지, 그 외 어린이집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1시간씩 추가 지원한다. 기존 60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1일 6시간, 그 외 어린이집은 1일 4시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51

의료비 지원 강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존 출생 후

충남도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전락작물직불금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올린다. 또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지원한다.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정주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주거안정과 정착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인턴사업을 확대한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본다.



트 구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 041-635-563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보 시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올해부터 1일 더 빠르게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부문 미세먼지 선제감축 등 조기 대응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도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니어 카시트’가 지원물품에 포함되었다.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안전세트(차량용 공기청정기, 소화기, 옐로카드, 경광봉, 응급처치세

제 기간('23.12.~'24.3.)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로 확대된다.

/대기환경과 041-635-442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13.16% 인상된 183만 3572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48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지원한다. 수도권 통학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천안·아산 지역민 대상으로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1인당 연 100만원 한도이다.

/교통정책과 041-635-457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소득조건은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2년에서 연장 불가했으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정책관 041-635-2064

청년인턴사업 대상 확대

청년들이 지역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청년인턴사업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사업은 기존 인문계열 전공한 구직 청년 30명에서 전공 상관없이 60명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직무를 배우게 된다.

/청년정책관 041-635-3984

/김정원 jwkim87@korea.kr

멋진 충남도민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Q. 남과 여, 성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A.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질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궁금한 최초의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性)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성(sex)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규정하는 해부학적·생리학적 차이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여성은 월경, 임신, 출산, 수유 등, 남성은 정자 생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Q. 여성·남성적인 기질과 태도·가치·역할은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한 것일까요?

A. 오랜 세월 동안 남성과 여성의 역할, 신념체계 및 태도, 이미지, 가치, 기대 등의 차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다움’은 의존적·주관적·수동적·비경쟁적이며, 모험심이 낮고, 섬세하고 온화하다 등으로, 반면 ‘남성다움’은 독립적·객관적·경쟁적·모험적이며, 야망이 있으며, 타인과의 공감력이 낮은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 용어가 바로 사회적 성(gender)이며, 특히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성별로 다른 기질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A. 규격화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각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개별 주체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행동과 다양한 선택을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성별 지위와 권한 등에서의 불평등을 낳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 앞으로 성별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할까요?

A. 성별 차이로 인한 불편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따른 경험과 요구를 존중하고, 성별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을 하는 성인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젠더 퀴즈

다음의 글을 읽고, 섹스와 젠더를 구분해 보십시오.

(섹스이면 S, 젠더이면 G로 표시하세요)

- ✓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
- ✓ 어린 소녀는 부드럽고 수줍어한다. 남자아이는 거칠고 모험을 좋아한다. ()

/이경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참고 자료: 한희선, 이경하 외, 「여성·젠더·사회」, 공동체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보기]와 같은 숫자의 배열을 모두 찾아 묶어보세요.

보기

2 6 5 7

4	4	9	4		4	4	2	1
2	2	6	5	7	6	7	6	7
6	8	9	2	2	3	4	5	1
2	3	5	7	8		9	7	3
6	9	1	2	5	9	7	2	8
5	1	2	6	5	7	1	2	3
7	6	5	5	8		9	5	7
2	6	5	7		1	4	2	1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위드실버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충청남도청 10층 당국 電話 041-404-1421

: 10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대일공업(주)	공장 전기관리원	1명	041-521-1000	연 3,500만원 이상	논산	(주)삼일F&B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742-5850	연 2,800만원 이상
천안	레디솔루션주식회사	건축 제도사(캐드원)	1명	041-588-2323	연 3,000만원 이상	보령	주식회사우정종합건설	토목시공 기술자(토목견적, 공무포함)	1명	041-936-7001	연 6,000만원 이상
천안	위풍스주식회사	기타 전자 부품·제품 조립·검사원	2명	041-589-3110	연 2,900만원 이상	보령	우미건설(주)	토목시공 기술자(토목견적, 공무포함)	1명	041-933-3502	연 6,000만원 이상
천안	성환건설(주)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자	1명	041-952-1432	연 6,500만원 이상	보령	호텔우연플로라	호텔·콘도·숙박시설 프론트 사무원	1명	041-933-0007	월 230만원 이상
아산	주식회사엔코텍	기계·금속 제도사(캐드원)	1명	041-541-5861	연 4,000만원 이상	보령	주식회사	단순 경리 사무원	1명	041-942-2322	월 210만원 이상
아산	(주)에스엠테크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 조리사	1명	041-545-3655	월 210만원 이상	계룡	한국바이오에너지	시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2명	042-551-5629	월 234만원 이상
아산	에스지테크	머신닝센터(MCT) 조작원	1명	010-3424-5888	연 4,500만원 이상	계룡	계룡호센터	정육원	10명	042-582-2144	월 210만원 이상
아산	네오테크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5명	041-549-6908	연 2,860만원 이상	홍성	해련식품주식회사	건축시공 기술자(건축견적, 공무포함)	2명	041-632-3004	연 3,000만원 이상
당진	(주)한국송풍기엔지니어링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명	041-354-5411	연 3,000만원 이상	홍성	(주)삼우	지게차 운전원	1명	041-634-3900	연 3,300만원 이상
당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감동스토리	대형마트 판매원	2명	02-403-8586	월 230만원 이상	예산	개나리복지(주)	의약품 생산기계 조작원	1명	031-478-5774	연 2,800만원 이상
당진	주식회사서진철강산업	용접원	1명	041-352-2065	월 420만원 이상	예산	(주)고려비엔피	방사선사	1명	041-336-0638	연 3,000만원 이상
당진	(주)재영	제조·생산 관리자	1명	041-352-3979	연 3,400만원 이상	태안	의료법인모두온의료재단	호텔·레스토랑 웨이터·웨이트리스	5명	041-670-8831	연 3,200만원 이상
서산	두리사랑단기보호	장애인 생활지도원 (장애인활동보조원 포함)	1명	041-664-2059	월 250만원 이상	태안	일진레저주식회사	재가 요양보호사	1명	041-667-8843	시급 12,500원 이상
서산	서해그린에너지(주)	소각로 조작원	1명	041-663-7051	연 4,000만원 이상	서천	샘물재가복지센터	농약·비료 생산기계 조작원	1명	041-955-2511	시급 12,225원 이상
서산	동양기계기술주식회사	기타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2명	061-682-0401	연 4,000만원 이상	서천	(주)풍농장향공장	기타 자동차 운전원	5명	041-955-1681	연 3,800만원 이상
서산	서산탐노인복지센터	기타 조리사	1명	041-681-8825	월 220만원 이상	부여	유한회사대원	재가 요양보호사	1명	041-961-8003	시급 13,090원 이상
공주	주식회사제이에스이엔지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정비원	1명	041-854-4240	연 2,800만원 이상	부여	사랑노인복지센터	일반 간호사	2명	041-834-5114	연 4,200만원 이상
공주	주식회사한엘	제조 단순 종사원	3명	041-881-5300	월 211만원 이상	금산	의료법인창명의료재단 부여효양병원	산업용 보일러 설치·수리원	1명	041-754-8800	월 280만원 이상
공주	누리재활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실)	3명	041-854-6460	월 260만원 이상	금산	(주)대동엔지니어링	가구 조립원	1명	042-283-8236	월 220만원 이상
공주	(의)공주푸르메요양병원	의무기록사	1명	041-851-7607	연 2,880만원 이상	청양	두리산업	배송·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1명	041-944-0049	월 230만원 이상
논산	(주)대성페퍼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41-733-0123	월 220만원 이상	청양	청양고추랜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식 조리사(일반 음식점)	1명	010-8334-8820	월 250만원 이상
논산	세무법인서한	경리 사무원 (회계·세무 사무소)	1명	070-7805-6103	연 2,800만원 이상	청양	영터리아구	조작원	1명	041-943-7436	월 400만원 이상
논산	주식회사감동란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2명	041-741-2116	연 3,400만원 이상	청양	(주)재유(본사)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10-9344-7125	월 250만원 이상






1월 문화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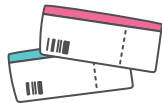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7	10	11	13
<div><div>드로잉 매직쇼 기간: 2024-01-06 ~ 2024-02-24 장소: 아산코미디홀 시간: 13:30 비용: 유료 문의: 041-542-5145</div></div>	<div><div>소프라노 조수미: 사랑할 때 기간: 2024-01-10 장소: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시간: 19:30 비용: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문의: 041-635-3815</div></div>	<div><div>2024 ITEF 유학박람회 기간: 2024-01-11 장소: 천안 신라스테이 2층 시간: 11:00 비용: 무료 청양 신년음악회 기간: 2024-01-11 시간: 9:30 비용: 10000원 문의: 041-940-2730</div></div>	<div><div>어린이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기간: 2024-01-13 장소: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시간: 11:00 비용: 25,000원 문의: 041-635-3815</div></div>

14	17	20
<div><div>아기돼지 삼형제 - 보령 기간: 2024-01-14 장소: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 시간: 13:00 비용: 20,000원</div></div>	<div><div>지역시민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스마트 부모시대 기간: 2024-01-17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4:00 비용: 무료 문의: 041-350-2911</div></div>	<div><div>발화-천안 기간: 2024-01-20 장소: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6:00 비용: 15,000원 ~ 25,000원 문의: 041-521-3745</div></div>

기간: 2024-01-14
장소: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
시간: 13:00
비용: 20,000원



신진청년예술인 갤러리 - 박혜영 연주자



▲ 공연 - 무악무악

충남지역의 문화 이해와 발전에 기여하며 관악 앙상블 ‘후후’를 결성하여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자 기획과 연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연은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나례의 의식을 기반으로 공연에서는 귀신을 쫓는 주문을 각 악기를 연주자가 구음과 사운드 아트로 음악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처용무와 버꾸춤을 선보이면서, 전통 음악의 매력을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연출하였습니다.



▲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한국가곡과 전통가곡을 해금으로 연주하여 대중에게 전하는 특별한 공연을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해금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과 서양의 가곡의 아름다움을 결합하여 ‘가곡’의 의미를 대중에게 전하려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음반 제작을 계획하고 있고, 사계절의 다양한 음악을 담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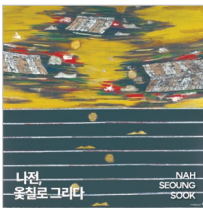
박혜영

▲ 약력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 온석대학원 대학교 예술대학 박사과정 재학
- 충남예술고등학교, 충남학생교육문화원 강사
- 국악앙상블 후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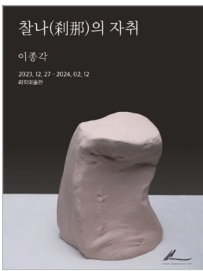
▲ 수상

- 2009 춘향국악대전 일반부 관악 최우수상
- 2015 울산전국국악경연대회 동상



나성숙 '나전, 옷칠로 그리다'

기간: 2023-12-08 ~ 2024-01-31
장소: 모나무르 갤러리
시간: 10:00
비용: 무료
문의: 041-582-1004



찰나(刹那)의 자취 - 이종각

기간: 2023-12-27 ~ 2024-02-12
장소: 리각미술관
비용: 무료
문의: 041-565-3463



오늘의 빛 찬란한 내일

기간: 2023-12-12 ~ 2024-02-29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아외공연장]
비용: 무료
문의: 041-350-2911



다들 가슴속에 ‘안주’ 하나씩은 품고 살잖아요



사서들의 서재



오늘 뭐 먹지? 권여선/한겨레출판/2023

끝날 것 같지 않던 한 해의 끝과 올 것 같지 않던 한 해의 시작. 이전의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술’이다. 아쉬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분을 즐기고자 친구끼리, 동료끼리 모여 술 한 잔씩 기울이게 될 때, 그 자리의 분위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술’의 단짝, ‘안주’이다.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즐겨 먹

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안주의 종류도 바뀌게 되는데, 그 많은 안주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끌리는 안주들이 하나씩은 있다. 권여선 작가의 「오늘 뭐 먹지」는 ‘음식’ 산문을 가장한 ‘안주’ 산문집이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아도 맛있는 안주는 없다. 음식 뒤에 ‘안주’ 자만 붙으면 못 먹게 없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은 작가의 생활 속에서 품고 있던 안주 모음집이다. 술을 좋아하는 작가가 인터뷰나 낭독회 등에서 틈틈이 술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주변 지인들이 작가가 자주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면 좋을 게 없다며 충고했다. 그래서 앞으로 술이 단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음 소설을 쓰며 고생을 바가지로 했고, 술 얘기가 쓰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대놓고 술 얘기를 마음껏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만큼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작가

와 마주보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그 앞에 놓인 안주에 담긴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것만 같다. 책에서는 4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들이 소개된다. 작가가 대학시절 처음 먹어봤다는 순대부터 어린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김밥, 비빔냉면 파였던 작가의 입맛을 바꾸어 놓은 물냉면과 찬바람 불면 떠오르는 냄비국수, 가장 흔하지만 가장 깊은 맛 어묵 꼬치까지 작가의 인생이 담긴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계절 재료들을 고르고, 손질하고,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담고 있다보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오늘 저녁 술자리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된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봐도 좋겠다. 작가의 추천에 따라 추운 겨울 저녁엔 뜨끈한 어묵 한 꼬치가 어떨까?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윤소윤

‘양대파’ 재배 기술 특허…K-푸드 대표작물 꿈꿔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김도혜 물조리자리 영농조합 대표

“함께 성장하며 즐겁게 사는 농촌 길라잡이 되고파”

서른이 채 안된 앳된 얼굴의 김도혜(27·물조리자리 영농조합 대표) 씨는 이미 유명인사다.

인간극장이나 생생정보통 등 지상파 TV화면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내로라하는 신문지상과 매거진에서도 여러차례 소개됐다.

양파와 대파의 장점을 모은 신채소 ‘양대파’ 개발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모두들 고향을 떠날 때 스스로 농촌 속으로 뛰어든 당찬 젊은이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2022년 5월엔 20대 대통령 취임을 알리는 타종식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명에 청년대표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예산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만발로 태어난 김씨는 작황에 따라 가격 낙폭이 커 한해 걸러 양파밭을 갈아엎는 농촌 현실을 지켜보며 자랐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 출하를 기다리다 싹이 나 버려지는 양파가 너무 아까워 양파에서 자란 싹으로 동생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양대파의 가능성을 처음 확인했다. 음식을 먹을 때 파를 골라 내던 동생들이 양파싹은 맛있게 먹

는 것을 보곤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한때 경호원을 꿈꾸는 여고생은 농수산대학 채소학과로 진로를 변경해 양대파 재배기술 연구에 본격 뛰어들었다.

국내외 특허를 등록한 양대파는 양파를 대파처럼 키우는 것이다. 구가 형성된 양파를 심어 5~7개 가지가 나오도록 재배한다. 향과 맛이 양파와 비슷하며, 대파보다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고 달짝지근한 맛에 아이들도 좋아해 일반 가정은 물론 고급요리 레스토랑에도 이름을 올린다.

양대파는 연중 생산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재배기간이 채 두 달이 되지 않는다. 저장채소가 아닌 신선채소로 섭취 가능하고 수확량 상승과 편의채소로 활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허를 낸 양대파를 장작한 김씨는 2019년 12월 복두칠성처럼 농업의 방향키를 제시하겠다고 야심차게 영농조합법인 물조리자리를 출범했다. 일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아닌 서로 힘이 되고 함께 잘사는 따뜻한 농촌을 만들고 싶



양대파가 성장하는 모습.

은 기대를 담았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름부터 생소한 새로운 채소이다 보니 먹는 방법에서부터 보관, 유통, 판로개척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부터 김씨는 직접 마트와 장터, 축제 등을 찾아다니며 계란에 양대파를 넣어 시식홍보도 하고 전국적인 채소 유통마트 관계자들에게 양대파를 알리려 신발이 닳도록 다녔다. 유명 호텔이나 레스토랑도 찾아다녔고, 지금도 양대파를 알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는 와중에도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양대파밭을 갈아엎으며 눈물을 쏟기도 하고 법인 운영난에 공사장 수신호 일을 하기도 하는 등 농촌 현실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지난해 매출이 2억원을 넘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김씨는 충남에 특화된 양대파를 활용한 농업인 축제를 구상 중이다. 현재 양대파는 로열

티없이 원하는 농업인들과 예산과 당진, 서산 등지에서만 재배하고 있어 양대파를 충남 대표 농업브랜드화해 축제를 통해 전 세계에 K-푸드의 대표 작물로 알리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김씨는 “농업을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다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한다. 꿈을 꾸고 꿈을 키워 나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다.

/도정신문팀



청년농부 김도혜

논산 지장정사 “따뜻한 팔죽 나눔으로 행복 전파”

지난해 12월 11일부터 8일간
1만 명분 동지팔죽 나눔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지장정사와 사회복지법인 지장원(대표이사 법원스님)에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8일간 1만명 동지팔죽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장정사(주지 법원스님) 주관으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3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

동지 팔죽에는 해가 바뀌는 동짓날, 한 해 동안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매년 지장정사에서는 팔죽 직접 농사



짓거나 기부한 봉사자들과 함께 팔죽을 삶고 팔죽을 정성껏 끓여 봉사하는 이 행사를 통해 ‘염원’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350명분의 팔죽을 전하기도 했으며 노성면,

상월면의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팔죽을 나눠줬다. 법원스님은 “1만 명분의 동지 팔죽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액운을 물리치고 함께 행복하자”고 말했다.

/논외신문 제공

다섯째 고명딸 돌잔치 대신 이웃에 나눔

홍성 장곡면 상송3구
이근우·김지혜 부부

홍성군 장곡면 상송3구 이근우·김지혜 부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고명딸 돌잔치 대신 이웃들에게 나눔을 택했다. <사진>

부부의 다섯째 아이 ‘루리’는 지난 달 18일이 돌이였다. 아들 넷을 낳은 뒤 얻은 딸이기에 그 누구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돌잔치를 계획했다. 돌잔치를 앞두고 주위를 둘러보니 경기도 안 좋고, 잔치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부부는 돌잔치 비용으로 한우 사골 300kg을 구입해 청로쉼터,

광천 사랑샘, 마을 주민 등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이근우 씨는 “이웃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우리 가족도 남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돌잔치 대신 나눔을 선택하게 됐다. 루리가 커서 자신의 돌잔치 대신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씨는 장곡에서 한우를 키우는 경민한우 대표이다.

청로회 이철이 대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부모라도 똑같은 것”이라며 “돌잔치 대신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부부의 헌신적인 행동이 너무나 감사하다. 부부의 선행 영향력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신문 제공

목공에 불태우는 노년의 삶

우산리 평생학습 특성화마을
우드버닝 교실 마을회관서 전시

당진시 정미면 우산리(이장 이한범)가 평생학습 특성화마을 사업 지원을 받아 우드버닝 배움교실을 지난해 운영한 뒤 작년 12월 14일 종강파티를 겸해 마을회관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우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50회, 약 100시간 동안 마을주민들에게 우드버닝 배움교실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밭일을 하다가도 수업시간이 되면 마을회관으로 달려오는 정성을 보였다. 이번 배움교실을 통해서 10여 명의 여성 주민은 우드버닝을 접목해 도마와 서랍장, 멀티탭 상자, 독서대, 휴지걸이, 연필꽂이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말려온 박에 우드버닝으로 글과 그림을 새기기도 했다. <사진>

장희숙 강사는 “예코백 천에도 우드버닝을 했고, 나무에 새긴 우드버닝 작품에 채색을 하기도 했다”면서 “우드



버닝 작품에서 참여자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가족들이 우드버닝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고 어르신들이 나무판에 본인의 이름을 새겨 이름패를 만들기도 했다.

/당진시대 제공



청룡의 해 갑진(甲辰)년을 맞이하며

내포칼럼



편 세 환
前 서산문화원장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모두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용은 전설의 동물로 인간을 이롭게 도와준다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과거 육십갑자 간지와 음력만을 사용했던 시대는 정월 초하룻날을 설 명절날이라 하여 조상신에 대한 차례(祭)를 지냈다. 그러나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양력을 따르게 되었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 음력 1월1일을 구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메이지시대부터 구정을 억제하고 신정을 적극 권장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구정을 설 명절로 정하여 우리의 전통을 다시 되살려 공휴일로 지정하였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설날엔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게 된다. 유교적 전통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유교의 제례 법에 따라 제를 지내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일반 가정에게까지 전파된 것은 승유억불 정책이 본격화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고 성리학이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여기던 시기부터 숭조사상이 더욱 강화 되었다고 본다. 유교는 인간 사회학적 규범과 숭조 사상을 중요시 한다. 삼강오륜과 육례(六禮)를 통하여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를 명시한 철학사상이다. 육례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중요한 여섯 가지 예법을 말한다.

첫째, 관례(冠禮)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다는 의식으로 옛 날에는 머리에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옷 어른들과 조상신에 제를 올리는 예이다. 둘째, 혼례(婚禮)다. 성인 남녀가 배필을 만나 백년해로(百年偕老)를 약속하는 예의식이다. 셋째, 제례(祭禮)다. 제례는 천제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제례가 있다. 그 중 조상신에 대한 제례가 중요한데 그 형태는 기제(忌祭), 사당제(祠堂祭), 묘제(墓制) 등 다양하다. 넷째, 상례(喪禮)다. 상중에는 초상(初喪)에서부터 탈상(脫喪)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제례법이 있다. 다섯째, 향음주례(鄉飲酒禮)다. 생일, 회갑 등에 잔치를 베풀고

이웃어른이나 친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예절이다. 여섯째, 상견례(相見禮)다. 사람이 서로 만나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이다.

육례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할 칠교(七敎)와 팔정(八政)이 있다.

칠교는 예절을 지킴에 있어 일곱가지 교훈을 말하는 것으로 부자지간, 형제지간, 부부지간, 군신 지간, 장유

설날은 유교제례법에 따라 조상의 차례를 지내는 것
유교는 삼강오륜·육례로 인간도리를 명시한 철학 사상
유교적 전통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정신적 자산 보전해야

지간, 봉우지간, 빈객 지간에 지켜야 할 교훈이다.

팔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절제해야할 여덟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음식(飲食), 의복(衣服), 사위(事爲), 이별(異別), 도(度), 양(量), 수(數), 제(制)가 그것이다. 즉 건강을 위하여 음식은 알맞게 먹어야 하고, 의복은 사치스럽게 입지 말아야한다. 일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릇과 생필품은 이웃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것을 쓰고 모든 일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도(度)와 일할 때 정확히 해야 한다는 양(量), 셈을 잘하는 수(數)와 모든 물건을 아껴써야 한다는 제(制)가 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삼강오륜, 육례, 칠교, 팔정 등 조상님들의 전통적 사상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모든 것은 재앙을 물리치고 인간을 이롭게 해달라는 우리의 소원이며 아름다운 민속적 전통이다. 아무리 과학문명의 시대라도 우리의 전통은 잘 보존하고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친인척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친척(親戚)은 부계 중심의 혈족 관계를 말하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하고, 고조부 이상을 선대(先代)라하며 고조부 이하의 자손을 현대, 또는 당내(黨內)간 부른다. 나를 중심으로 윗대 어른을 존속(尊屬), 아랫대를 비속(卑屬)으로 부르는데 직계존속과 방계존속, 직계비속과 방계비속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또한 인척(姻戚)은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외가와 처가의 가족을 말하며, 친척과 인척을 친인척 관계라 하는 내용을 설날 아침 가족 모임에서 교육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과거에는 새해를 맞으면 친인척 이웃어른이나 지인에게 세배를 하였는데 요즘엔 전화나 연하장으로 덕담을 나눈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하여 인사를 하는 등 그 양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편리했다. 하지만, 성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이웃어른들에게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전화나 손 편지, 연하장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제조업 그리고 지방소멸

충남도에 바란다



김 진 배
아산시 청년기업협의회장

지방소멸은 충남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민선 8기 도정에서도 중점과제로 선정할 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일자리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북부권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남부권은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가로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일자리와 인구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동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나 정주하게 된다. 충남 북부권의 대기업 일자리가 지방소멸을 벗어나게 해주는 장치가 된 셈이다.

이런 실정에서 충남 내 시·군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듯 보인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업 유치 정책은 확실한 결과를 제공했기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지방소멸을 막을 비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등 지금의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들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충남 내 지자체들이 진행하는 기업 유치가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충남 북부권의 시·군 들도 마찬가지다. 2024년, 경제불황을 전망하는 보도들이 등장하고 실제 지표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의 부정적 정세가 지역 제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실은 이미 충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아산시의 평균연령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간한 『제조업 위기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청년인구의 유출이 일반 고용위기 지역에서 더 빠르게 감소하며 청년 취업자 비중이 급감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인구소멸 예정지역에 들어 있지 않은 충남 북부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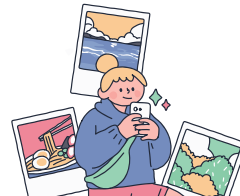
지역들도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충남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제조업 위기 시대를 정확히 정의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도 차원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위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일본·유럽 등의 사례를 학습하고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미래 동력 사업을 찾고 지역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경제, 바이오,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신사업의 육성에 더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신사업 육성 등을 통한 다수의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다수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 소수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자립 가능한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육성·성장시키는 정책의 지원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는 사회적경제 등 대안 경제의 육성이다.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인 정의와 역할을 제외하고서도 늘 어가는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복지 수요 속에서 마땅히 필요한 자산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마땅한 자산이라고 판단한다.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휴대폰에게 일자리를 뺏겨 백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멸종되기엔 아직 이릅니다. 비싼 값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귀한 대접 받는 부류도 있거든요. 이곳에 새로운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요?

멸종 위기

인공지능 시대라나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나는 어떻게 될까?
살아남으려면
하나를 넣으면 둘이 되게 하는
요술 단지를 찾아가 비법을 배워야겠어



김 미 희
시인·문화작가



갑진년 힘찬 출발

충남도의회는 1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갑진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홍성현 1·2부 의장,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충혼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방안 모색

한국외대서 공동세미나 개최 의회 위상·권한 강화 등 논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101호)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관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



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간 협력체계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입법이론실무학회장은)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광 선문대 교수(차기한국공법학회장은)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움아트홀, 이은영 ‘조용한 일_리듬’展

1월 31일까지 안부 등 총 23개 작품 선보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월 2일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이은영 작가의 개인전 ‘조용한 일_Rhythm(리듬)’展을 개최했다. 이번 개인전은 다움아트홀에서 열리는 2024년 첫 번째 전시회로,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은영 작가는 한국미술협회와 천안미술협회, 빛다색회, 충남아트21에서 활동 중이며, 세 차례의 개인전과 두 차례의 초대 전시회를 열었다. 또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충남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 ‘조용한 일’展은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한 감정들을 형상화하고자 했다”며 “시간과 기억에 관한 형상을 공간 안에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차원의 단면을 삽입·재구성해 새로운 이미지로 표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부여2)은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도민 누구나 전시가 가능한 곳으로, 생활문화동아리 회원은 물론 수준 높은 전문 작가들의 참여로 고품격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시각문화를 향유하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일상적인 기억의 형상과 반박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며 “많은 도민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의정 토론회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가 대안 오인환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12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농업·스마트팜 정책 방향성 제시 이연희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연희(서산3)의 요청으로 12월 27일 서산문화원 강당에서 ‘청년 스마트팜, 충남 농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연희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민승규 세종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글로벌스마트팜연구소 이인규 대표가 맡았으며,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유명한 서유채농장의 홍민정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장인동 충남도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장, 이진영 충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 박두웅 내포시대 국장, 김동완 충남 4-H 연합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충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청년 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충남 스마트팜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대책 논의 전익현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12월 21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사진)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좌장을 맡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과장,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치료센터장, 전희진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 ▲증상에 따른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대응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 방향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 활성화와 상담 개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범이 증가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김민수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12월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사진)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과 산림병해충 시군담당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종보고 결과 청취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회원들은 충남도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과학적 예찰과 방제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갈 것을 다짐했다.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재선충 방제 지도 교육과 홍보, 소나무재선충 예방 주사 독성 내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앞장

오인철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오인철)은 12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사진)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은 오인철 의원(천안)을 비롯해 충남도·충남도교육청 관계부서,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는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가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윤 교



수는 공공 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오인철 의원은 “이번 연구가 급식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충남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품 건강도시 조성 위한 실무지침서 완성

이종화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12월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4차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실무지침서에는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징 등이 담겼다. 특히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건강도시 만들기예 대한 회원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충남도가 건강도시로 발전할 자양분을 얻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성화 성과·과제 도출

이지윤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지윤)은 12월 14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연구모임 4차 회의(사진)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연구모임 마지막 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지윤 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해, 그간 활동 사항을 돌아보며 충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연구모임은 충남의 실정에 맞는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회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지윤 의원은 “회원 여러분이 주신 의견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기업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이현숙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12월 13일 충남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사진)를 열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모임에는 이현숙 의원과 김도훈 의원(천안6), 신한철 의원(천안2)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에서 진행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



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현숙 의원은 “체계적인 교육 지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가소득 증대 위한 유통 개선 연구

주진하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주진하)은 12월 13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3차 회의(사진)를 열고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주진하 의원(예산2)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다.

최종 보고에서 위원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립이 절실하다”며 “특히 생산자 조직화 및 다품목 운영을 통한 시설 가동률 제고



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지역 내 소포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규모 마트에 납품하는 유통비와 유통 시간을 절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원시론

‘탄소중립사회’ 전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원

바다를 접한 많은 지역들이 대도시를 위한 에너지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충남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서전·보령화력이 준공된 뒤,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이 크게 늘어 현재는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다. 주지하듯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됐고, 어민들은 ‘열오염’이라 불리는 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에너지 생산 및 산업구조에 있어 탈(脫)석탄 인식이 강조되었고, 정부는 탄소의 순배출량을 ‘0’

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할까. 도민에게 오랫동안 환경피해를 입혀 온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기 시작하자 이번엔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가운데 32%는 충남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인력뿐 아니라 전·후방산업의 일자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석탄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의 지역경제 타격은 볼 보듯 뻔하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생존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가면 극단적인 기후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고, 이미 수년 전부터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산불, 태풍 등 기상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밝혔으며, 충남 또한 오래전부터 탄소중립사회 전환의 기반을 닦아 왔다.

그러나 고탄소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충남의 출구전략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피해 보상과 환경개선 요구에서 더 나아가, 강력한 탈석탄 에너지정책을 구축하고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의 산업과 기업,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압력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충남을 비롯한 국내 산업구조

는 탄소중립 기조의 세계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전환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국면에서 소외된 영역의 목소리를 전할 창구가 부재할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이익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기후·환경 등 기술·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노동·교육 분야 등에서도 원활한 사회적 소통을 이끌어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경제적 성장과 사회정의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4

도정 주요 일정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JANUARY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신정(1.1)

도정운영
·시무식(1.2. 문예회관/도지사)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발기인대회(1.11./정부부지사)



2월 FEBRUARY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입춘(2.4.) ·설날연휴(2.9.~ 2.12.)
·정월대보름(2.24.)

도정운영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2.1.~5.15.)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2024년 시·군 산림관계관 회의(2월초)
·충남도립대 학위수여식(2.14./도지사)
·일본사무소 개소식 및 재일충청협회 신년하례회 참석(일본 도쿄, 2.15.~2.17./도지사)
·충남도립대 입학식(2.29.)
·제52회 3.1절기념 충청남도지사기 시군대학 역전경주대회(2월말~3월초)



3월 MARCH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삼일절(3.1.)

도정운영
·1차 경제상황점검회의(도지사)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제105주년 3.1절 기념식(3.1./도지사)
·2024년 상반기 쉼(SSEn)을 위원회(3월중/도지사)
·넥스트라운드 in 충남(도지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협약(기재부)(3월중)
·2024년 산불방지협의회(3월중)
·모범 군장병 충남 시티투어(3월중)



4월 APRIL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수산인의 날(4.1.)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국민안전의 날(4.16.) ·충무공 탄신일(4.28.)

도정운영
·지방정부회의(4월중/도지사)
·제2기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4월말/도지사)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제52회 충남소년체육대회(4.5.~4.7.)
·제25차 세계대표대회 및 수출상담회(4.16.~4.19.)
·유관순상 시상식(4월중/도지사)
·충남장작스튜디오 개관식(4월 중)



5월 MAY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임하(5.5.)
·석가탄신일(5.15.) ·부부의 날(5.21.)

도정운영
·산림재해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5.15.~10.15.)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5월/도지사)



6월 JUNE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현충일(6.6.)

도정운영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6월중/도지사)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실국보고회(정부부지사)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6.6./도지사)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6.13.~6.16.)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6.15)
·범도민 1회용품 퇴출 실천행사(6월중/도지사)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6월중)



7월 JULY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초복(7.15) ·제헌절(7.17.)

도정운영
-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섬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범식(7월중/도지사, 행정부지사)
·충남미술관 건립 착공식(7월 중/도지사)



8월 AUGUST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입추(8.7.) ·광복절(8.15.)

도정운영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회(8월중/도지사)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제5회 섬의 날 행사(8.8.~8.11./보령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8.15./도지사)



9월 SEPTEMBER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추석연휴(9.16.~9.18.)

도정운영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9월중/행정부지사)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9.1.~9.7.)
·2024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9.5.~9.6./도지사)
·2024 충남'드론 챌린지'(Challenge)(9.8.~9.9.)
·제39회 충청남도여성대회(9월초/도지사)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AIPH 총회 발표 및 국제공인 획득(9월/폴란드/도지사)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기념 행사(9월/도지사)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9월중/도지사)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준공식(9월중)
·K-유교문화제(9월중/도지사)



10월 OCTOBER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도정운영
·제31회 기업인대상 시상식(10월중/도지사)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제28회 충남노인의 날 기념행사(10월중/도지사)
·제29회 충청남도민の日 기념행사(10월중/도지사)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10월중/도지사)
·충청남도 임업인 화합행사(10월말/도지사)
·충청남도-중국 국제환경행정교류회(10월중)
·고향마실한마당(10월중)
·제12회 여당국제공연예술제(10월중)
·제17회 충남예술제(10월중)
·제2회 전국노인체육대회(10월중/도지사)



11월 NOVEMBER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입동(11.7.)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도정운영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11.1~12.15)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제33회 충남학생체육대회(11.1.~11.3.)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11월중/도지사)
·2024년 도전! 재난안전골든벨(11월중/도지사)
·충청남도 소비자 대회(11월중/행정부지사)
·2024 충남대학교포스트대전(11월중)
·병역영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행사(11월중)
·2024년 충청남도 주민자치 한마당(11월중)



12월 DECEMBER

법정공휴일·기념일·절기
·대설(12.7.) ·동지(12.21.)
·성탄절(12.25.)

도정운영
·충남벤처인대회(12.16. 예정)
·지방정부회의(12월중/도지사)
·2024년 정책특별보좌관 전체회의(12월중/도지사)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12월중/도지사)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실국보고회(정부부지사)
·자발적 감축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보고회(12월중)

**문화·체육 등
도정 주요행사**
·2024년 하반기 쉼(SSEn)을 위원회(12월중/도지사)
·제32회 농어촌발전상 시상식(12월중/도지사)
·2024년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12월중/도지사)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개관식(12월중)